행복도시 이야기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청 SNS
바로 가기

Vol. 202호 1월

발행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주요 소식

- 행복청 시무식, 현충원 참배
- 2024년 정책돋보기
- 행복청 차장 기고
-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개통 효과 분석
-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 착공
- 행복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조감도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National Agency for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행복청, 2024년 시무식에서 "실질적 행정수도 조성, 최우선 목표"

행복청은 1월 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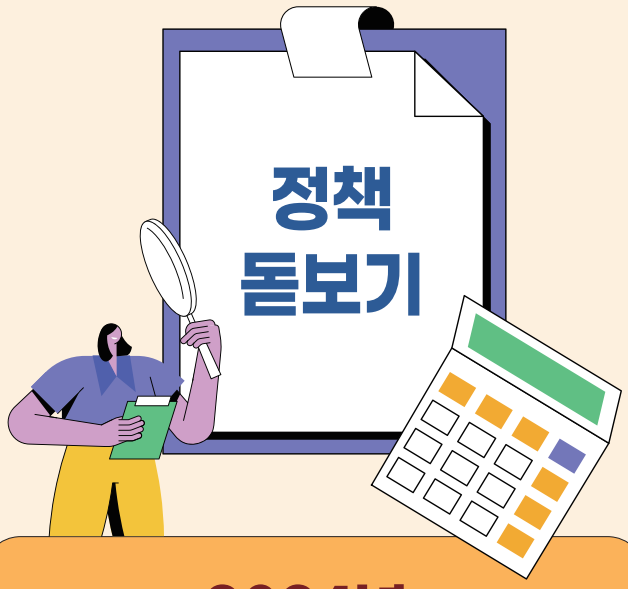
김형렬 행복청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윤석열정부 출범 3년차로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 등 국정과제에 성과를 창출해야 할 시기" 임을 강조하고 "대통령께서 당부한 민생안전과 신속한 예산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행정수도 조성 주택, 교통, 문화시설 등 자족기능 확충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산집행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직자 자세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형렬 청장은 시무식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직원들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김형렬 행복청장은 1월 4일(목)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현충원 참배에는 행복청 차장, 각 국장, 과장 등 20여명이 함께하였습니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헌화 및 분향을 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2024년, 행복도시 활력을 높이는 데 집중!

■ 청사, 업무 등 미래 수요 대응을 위한 주요 기능 배치
■ 상업, 숙박, 위락, 휴양 등 도시 관광기능 확충

올해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 업무, 산업 등 자족기능과 상업, 숙박, 위락, 휴양 등 관광기능을 확충하는 도시기반을 마련합니다. 행복도시가 도시완성단계(2021년~)에 들어선 이후,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여 도시가 한층 성숙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래수요 대응을 위해 청사, 자족시설 등 주요 도시기능을 추가 배치합니다. 청사용지 추가 수요를 파악하고 미디어, 협회·단체, 기업 등 핵심자족시설은 유치단계부터 입지·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한 후 용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간 유보해왔던 중심상업지구(나성동, 2-4생활권) 내 숙박·위락시설 등의 단계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일부 부족했던 기능을 보완합니다. 이는 생활권별 상업업무용지 배치 및 공실 현황 조사결과와 더불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기능과 함께 기존 상권을 포함한 도시 전체의 활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여가·레포츠·휴양 등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 전문가, 사업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고운동 대규모 유보지를 자연친화적인 힐링 공간으로 계획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2024년에는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기능을 배치하고 상업, 숙박, 휴양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활성화하여 행복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 치안 및 재난대응시설 확충

■ 행복청, 치안 및 재난대응시설 확충
■ 세종경찰청, 국가재난대응시설 등 치안·재난대비 공공청사 4개소 건립

행복청은 도시발전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각종 재난과 재해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치안 및 재난대비 공공청사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준공예정인 어진동(1-5生)의 청사지구대는 도담·어진·나성·해밀동 일대를 관할하는 신설 지구대입니다. 앞으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집회와 시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의 치안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강동(5-1生)에 들어서는 세종경찰청은 범죄수사와 경찰관서 지휘, 교육 및 훈련 등 경찰력 운용을 위한 공간으로, 국가주요시설이 밀집한 행복도시의 치안서비스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이 시설은 내년 착공하여 이듬해인 2026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행복청은 건립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테러방지·인명구조 등 업무수행과 특수훈련을 위한 세종경찰특공대도 금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문을 엽니다. 고운동(1-1生)에 건립되는 이곳은 각종 대테러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대응속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소방청의 업무·훈련공간인 국가재난대응시설은 화재나 구조물 붕괴 등 대형 재난발생 시 실시간으로 현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휘 및 통제하는 곳입니다.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다정동(2-1生)에 건립이 한창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의 치안 및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인 종합사업관리와 안전점검으로 도시건설 '효율과 안전' 잡는다

■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사업별 공정 및 재정집행 관리체계 구축
■ 해빙기 등 취약시기 민간전문가 참여확대 등 맞춤형 현장점검 실시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주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종합사업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주도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행복도시 건설은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민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수의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여타 신도시 개발과는 차별화됩니다. 이에 행복청은 2007년 도시건설 부문 최초로 복합적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인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사업관리는 전체 사업을 총괄함과 동시에 각 세부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최소의 비용과 최고의 품질로 건설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특히, 입법과 국정운영이라는 국가중추기능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스마트한 미래도시 모델이자 실질적 행정수도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행복청은 이들 사업마다 계획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부문별로 공정 및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참여주체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울러,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행복청은 세종시, LH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동절기,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는 각 현장의 공정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 건설환경정비 캠페인 등 다양한 안전교육 및 행사를 실시하여 건설관계자의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예정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공정 및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내실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통해 행복도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 '시민체감도' 높인다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여건변화 반영한 교통체계 개선 본격화
■ 승용차 교통량 다이어트 위한 인프라 개선, 각종 캠페인 실시 등

행복청은 올해부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세종동(S-1생활권)의 미래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인근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섭니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수립한 '행복도시 내부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금년 중 LH와 함께 갈매로와 금남교차로 확충, 중앙공원 내 96호선 도로의 선형 변경과 일부 입체화, 절재로·임난수로를 지나는 '十'자형 신규 BRT 노선 및 전용도로 설치 등 세부사업의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강 횡단교량 추가 설치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복청은 금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1억원의 연구용역비로 상반기 중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교통흐름의 효율을 높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량의 적정 위치와 규모 등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서입니다.

한편, 승용차 교통량 감축과 교통 수요관리를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행복청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를 확충하고 신호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세종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홍보 및 캠페인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자전거, 도보 등 비승용차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도로정체 개선, 환경오염 저감 등은 물론, 건강증진과 교통비 절약 등 시민 개개인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행복도시, '탄소중립 수소도시'로 가는 역사적 발걸음

■ 에너지·수송 부문 청정수소로의 전환 등 수소도시 구축 본격화

행복청은 올해 화석연료에서 청정수소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모델을 마련하고 도시 여건에 적합한 추진전략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행복도시는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도시 구상단계에서 탄소배출 등 환경영향을 고려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저탄소 친환경 열병합발전을 계획*한 것이지만, 이상기온 등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지금,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 (열병합발전) 개별난방 대비 대기오염물질 36% 감축, 이산화탄소 44% 감축

행복청은 그간 환경보호 차원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꾸준히 보급하고 확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설치 제약사항이 많고 시간별·계절별 에너지수요 편차에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탄소배출은 없고 수송과 저장이 모두 가능한 수소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핵심수단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올해 행복도시 수소도시 조성계획은 에너지전환과 수송 부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누리동 LNG 열병합발전소에는 금년 상반기 중 발전연료에 수소를 섞어 연소시키는 설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약 30%의 수소를 혼합하여 발전하면 기존 대비 탄소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수송 부문에서는 수소버스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현재 행복도시에는 일반 승용차용 수소충전소가 2개소 어진동 대평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소버스 운영을 위한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도 대평동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청은 수소차 이용 현황과 보급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수소 교통 추진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청정수소로의 에너지전환과 수소차 상용화 등 수소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행복도시는 다가올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발빠르게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행복도시권 동반성장을 위한 광역상생발전 초석 다진다

■ 행복청·충청권 4개 시도 광역상생발전 위한 선도사업 발굴

행복청은 올해 대전과 세종, 충청남북도 4개 시도와 함께 산업경제 및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전방위에 걸친 상생협력 선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광역상생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공동수립 및 광역상생발전을 위한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성과로는 광역버스 노선 확대, 대중교통 통합 환승 시스템 마련,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등이 꼽힙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기존사업 간의 연계성이 강화되면서 충청권 광역 상생발전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행복청은 특히, 2027년 개최되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를 계기로 백제문화권, 금강수변축, 복합전시산업시설(MICE) 등 지역 문화관광인프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도로 확보 등 관련 사업을 중점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광역거버넌스 정례 운영, 광역상생 협력사업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충청권을 아우르는 행복도시권 메가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향후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복도시권 동반 상생발전을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볼거리, 놀거리 가득한 국립박물관단지 추진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사업 지원 및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 기본구상안 마련

지난 12월 행복도시에 국내 최초 독립형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개관하면서 국립박물관단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행복청은 올해 국립박물관단지 2구역(이하 2구역)에 국립 및 민간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유치해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종동(S-1생활권)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총면적은 20만㎡로, 이 가운데 약 8만㎡의 1구역에는 지난해 문을 연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이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건립됩니다. 나머지 2구역의 부지면적은 총 12만㎡, 이 가운데 5만㎡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이전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금년 중 수요조사 및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2구역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청은 부지매입, 도시계획 반영등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구역 잔여부지에 1구역의 박물관과 연계하여 우수한 문화시설과 상업 및 편의시설 등 즐길거리가 풍부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기본구상안을 마련합니다. 행복청은 우선 각 부처의 국립박물관 건립수요를 파악하고, 민간의 우수 사례조사와 유치방안 등을 모색해 다양한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올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한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즐겨 찾는 문화적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등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 박차

■ 이해관계 조정 및 실행력 확보 위해 국가가 계획·관리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

행복청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행복청은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의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입니다.

입법과 국정운영이라는 국가중추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행복도시의 도시 위상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입지하는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입지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등 국가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령 개정을 통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입니다.

한편,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시설 등의 관리권한은 개별법령에 의해 분산되어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가중추시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행복도시, 슬기로운 대중교통 이용법

■ 행복도시권 통합 환승할인 확대, 'K-패스'·'이응패스' 연계 대중교통 활성화 기대

금년 하반기부터 행복도시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대상 지역이 기존의 세종·대전에서 청주와 공주까지로 확대됩니다. 행복청 관계자에 따르면 BRT광역버스나 도시철도,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최초 탑승 시 기본요금(시도별 상이*)을 내면 추가 요금 부담 없이 환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기준(성인) 1,400원~2,300원

그동안 세종이나 대전에서 청주, 공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중복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지난해 행복청과 세종, 대전, 청주, 공주 등 4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광역교통체계 개선 및 환승할인에 충당할 공동재원을 마련하는 등 환승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어 올해에는 지역별 통합교통시스템과 대중교통 정액권·무임카드 정책과도 연동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5월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횟수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다음 달 돌려받는 국토부의 'K-패스'가 시행되고, 뒤이어 9월에 월 2만원 정액권을 끊으면 최대 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의 '이응패스'가 도입되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광역 환승할인까지 받으면 교통비 절감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노선 확충, BRT 서비스 개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국내 최고 자전거도시? 도로망도 이용률도 '1위' 행복도시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인프라 개선으로 이용률 지속 제고

지난 8일 세종시가 지자체 최초 매월 8일을 '자전거 타는 날'로 지정하고 공영자전거 '어울링'의 무료 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이 지역의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세종시의 도심부에 해당하는 행복도시의 우수한 자전거도로망과 편리한 이용환경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청은 올해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보도와의 분리시설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해나감과 동시에, 세종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유자전거 서비스 확대 등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는 각종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구상 단계에서부터 친환경도시를 표방해온 행복도시는 원점부터 개발되는 계획도시의 이점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해왔습니다. 2030년까지 총 478㎞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한 가운데,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의 68%에 해당하는 349㎞를 개통했습니다. 도시 내 어디에서든 5분이면 금강과 방축천, 제천 등 수변공간의 자전거도로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촘촘한 자전거도로망 덕분에 행복도시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3.1%('19년 기준)에 이릅니다. 전국 평균이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내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수단 분담률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교통수단분담률 :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비율

행복청은 금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공간을 설치하여 자전거 안전존을 조성하고, 횡단보도에서 끊기기 쉬운 자전거도로를 자전거횡단로와 연결하여 주행성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노후 공영자전거 교체 및 설치 지역 확대, 앱 기능 업데이트 등 어울링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자전거는 보행과 함께 최고의 녹색교통수단이라면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은 물론, 관련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도 병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고문

국립어린이 박물관으로의 초대

김규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1899년 미국 브루클린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이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춰 전시를 기획하고 소장품을 활용한 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이박물관의 태동기를 거쳐 1962년에 보스턴 어린이박물관에서 핸즈온(hands-on)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유물 중심의 전시에서 관람객 중심의 전시로 전환하여, 단순히 유물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놀면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삼성어린이박물관을 시작으로 국립박물관의 부속 어린이박물관과 독립된 공립박물관으로 서서히 저변이 확대되었습니다.

세종시에 터를 잡은 국립어린이박물관도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놀 수 있는 핸즈온(hands-on) 방식으로, 국립박물관으로는 최초로 독립된 형태의 어린이박물관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관 축하와 함께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도시를 만들어 보고, 발로 밟으면서 수상도시, 지하도시, 숲속도시를 경험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로, 출산율이나 유소년 인구 비중 또한 가장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문화 · 예술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큽니다. 이를 반영해 행복청은 전시 설계와 공간조성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주제를 체험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로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자연과 지구, 도시환경, 기록문화 등을 주요 주제로 체험물을 개발하고 감각적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개의 상설전시는 도시와 건축, 우리 문화 속 기록문화를 중심으로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도록 디지털과 아날로그 활동을 균형 있게 제작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공간은 자연 속 숲을 주제로 어린이 발달에 맞는 신체활동과 감각활동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기획전시는 인류와 지구를 주제로 도구를 탐구하고, 직접 체험 전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실 내부에는 별도의 교육실이 갖춰져 있어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여 유아부터 초등고학년까지 전 연령층의 어린이가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진행한 창작워크숍에서 초등학생 6명이 작가와 함께 직접 창작한 온라인 체험시설이 설치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박물관의 편의공간을 현대미술작가와 협업하여 예술적 상상력이 넘치는 독특한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관람객이 처음 입장하는 로비는 기하학적인 요소와 강렬한 색감의 벤치 기능이 있는 조형물로 채웠고, 휴게공간은 작가의 상상 속 생명체들이 친구처럼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흥미를 끕니다. 전시실 속 작은 디지털 아뜰리에는 우주여행을 주제로 4면의 스크린과 바닥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만이 아니라 관람객 모두에게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개관 이후 한 달 동안 약 13,000여 명의 어린이와 보호자가 다녀갔습니다. 박물관 곳곳이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활기가 넘칩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와 함께 즐기며 추억을 만드는 곳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모두가 즐거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행복한 순간과 유쾌한 경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초대장을 띄워봅니다.

5生 외곽순환도로 개통효과 뚜렷... 집현교차로 교통량 절반으로

■ 외곽순환도로 본선 통행에 따라 한누리대로 교차로(집현·너래·미르교차로) 정체 감소

행복도시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행복대로) 개통 전후 교통량 조사 결과, 도로 개통에 따라 내부순환도로(한누리대로) 교차로 교통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청은 1월 23일 도로 개통 전후 인근 주요 교차로를 대상으로 한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집현교차로는 출 · 퇴근시간 4시간 교통량이 개통 전 7,645대에서 3,384대로 55.7% 감소하여 절반이 되었습니다. 청주 방향 통행을 위해 집현교차로 및 아람찬교를 이용하던 운전자들 상당수가 외곽순환도로로 바로 통행하게 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너래교차로'역시 교통량이 1만 7,419대에서 1만 1,742대로 32.6%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교차로의 '4생활권 ↔ 청주'방향 교통량은 4,309대에서 1,304대로 무려 7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오송역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미르교차로'는 1만 2,391대에서 1만 639대로 14.1% 줄어들었습니다. 이 교차로의 '4생활권 ↔ 오송'방향 교통량은 2,825대에서 1,471대로 약 48% 감소했습니다.

한편 신설된 도로 구간은 1월 11일 기준 오전 첨두시간(07:00~09:00) 3,731대, 오후 첨두시간(17:00~19:00) 2,972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신규 생활권 입주, 광역 대중교통노선 신설 등 교통량 영향 요인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세종시, 경찰서,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반한 신호 운영을 협의하고, 염수분사시설 및 조명 등 안전시설물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청, 국내 최초의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 착공

■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중 두 번째로 건립, 2026년 상반기 준공

행복청은 1월 22일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우수한 건축가들의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하기 위해 2020년 10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국내 시공 사례가 적은 고난이도의 적층형 철골구조로 설계됨에 따라 품질향상과 안전강화 등 책임시공이 가능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지난해 11월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22일에는 스페인의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Alejandro Zaera-Polo), 시공관계자 등과 사업추진현황, 기술제안 주요 내용 및 시공일정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통해 당선작의 설계의도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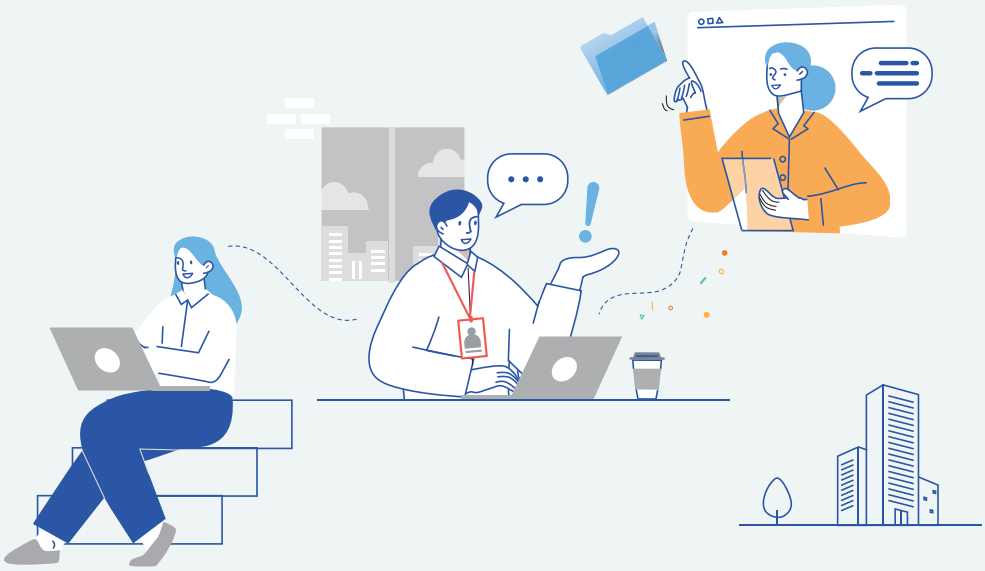
도시건축박물관은 총사업비 180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0,400.73㎡에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국립박물관단지 내 개별박물관 중 최대 규모로 2026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도시건축전시공간, 통합수장고, 보존과학실 등으로, 전통 한옥의 목조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재현하여 건축물 그 자체가 전시가 되는 국내 최초의 도시건축 전문 박물관입니다.

안정희 국립박물관단지팀장은 "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시공 안전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도시·건축의 중요성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도시건축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우수상

유치 홍보를 통해 행복도시를
기업이 몰려오는 자족도시로!

배경 도시 내 세종테크밸리 등 도시 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 중이나, 인지도가 낮아 우수기업 유치에 한계

노력
1. 수요자 중심 홍보를 위해 **잠재 투자기관 대상 설문조사 실시**
2. 입주한 기업 대표자들이 **행복도시 우수성 홍보 인터뷰 영상 참여**, 기관별 **특화 브로슈어 제작**, 가산디지털단지 **옥외광고** 등 **홍보전략의 다각화 실시**

성과 IT·BT·ET 등 첨단산업 우수기업 6개사가 **세종테크벨리**에 새롭게 **입주**하여, **행복도시 자족기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력** 기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우수상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발판,
행복도시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배경 국회 세종의사당, 광역교통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에 대해 행복청이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성과
1. **중앙공원내 96호선**을 친환경적 도로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쾌적성·자연 생태보전 등 **양립가능한 대안 모색**
2. **중앙녹지공간 인근 도로·교량을 확장**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3. 신규 BRT 노선, 환승센터 설치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지원 실시하여 **행복도시의 쾌적한 교통체계 개선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앞으로도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을 통해
행복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애독자 코너

행복이와 한글교시(1교시)

알쏭달쏭 우리말 바르게 쓰기

■ '느지막한'과 '느즈막한' 어떤 것이 맞는 말일까요?
- 느지막한 오후에 친구를 만났다. (O) - 느즈막한 오후에 친구를 만났다.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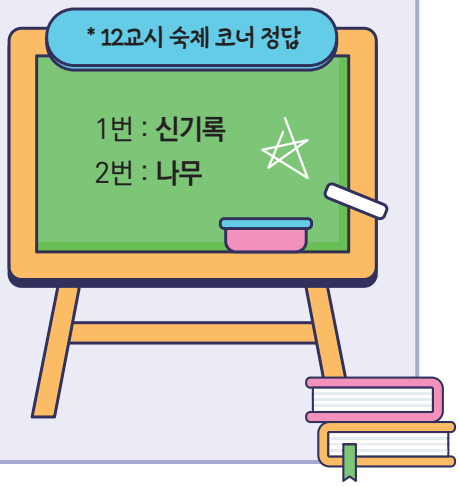
■ '얼마예요?' '얼마에요?'
- 바지 가격이 얼마예요? (O) - 바지 가격이 얼마에요? (X)

숙제 코너 (난센스 퀴즈)

알듯말듯 우리 속담 알아보기

① 뛰면[?][?]이요 날면[?][?]

② 쟁기질 못하는 놈이 [?]탓한다



사진으로 보는 행복도시, 빈칸 채우기 퀴즈 이벤트

행복도시의 보건복지정보에 특화된 이 곳은 한글 미음(ㅁ)자의 중정형 건물배치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곡선미의 지붕형태를 채택하였고, 복지시설로 연결되는 마당을 중앙에 배치하여 노약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시설별 독립성도 도모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숙제 O, X 및 빈칸채우기 정답은 행복청 대변인실 naaccadmin@korea.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각 퀴즈의 정답자 선착순 5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행복청 SNS 채널

- 페이스북 facebook.com/happycitysejong
- 유튜브 youtube.com/user/happysejong
-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appycitysejong_official
- 블로그 blog.naver.com/macc2030
- 트위터 twitter.com/HappycitySejong

발행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 044-200-3094 **www.naacc.go.kr**

디자인·제작_(주)다원기획
T. 044-865-8115